



고령화 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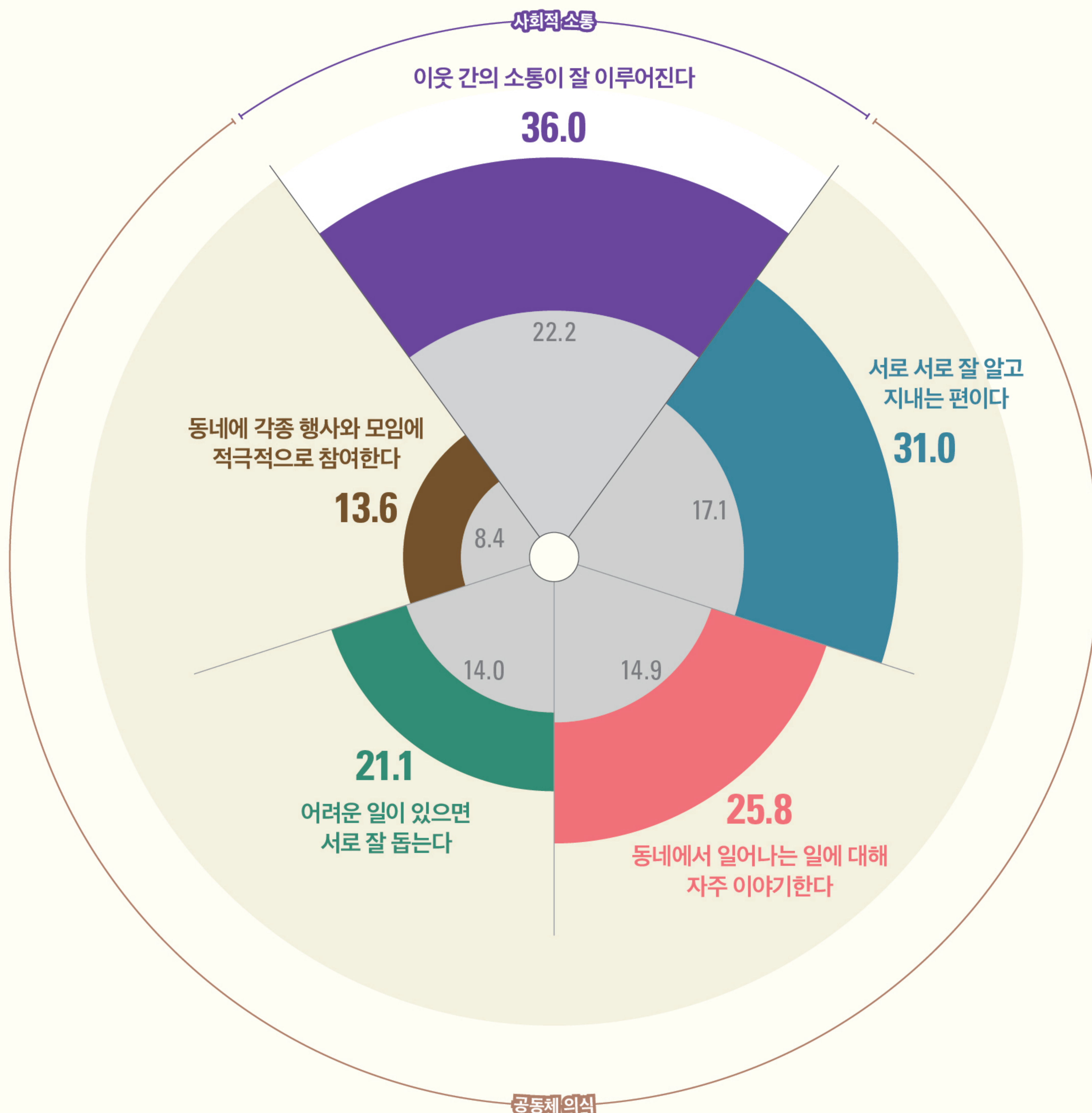
지역을 지키는 힘, 누구?
POWER

2024년 대전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대전시민의 25.8%¹⁾를 차지한다. 10년 전에 견줘 10.7%p 증가했다. 점점 늘어나는 고령 인구, 이들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쏟아진다. 초고령 사회²⁾로 접어든 지금,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발휘하는 공동체 의식은 회복력이 높은 지역사회,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
대전 60세 이상 시민,
60세 미만보다
공동체 의식 높아

이웃과 소통이 '잘 이루어지고 있다'고 답한 대전시민의 비율은 60세 미만 22.2%, 60세 이상 36.0%로 60세 이상이 60세 미만보다 높다. 친밀, 공유, 도움, 참여로 나눠서 살펴본 공동체 의식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60세 미만과 비교해 60세 이상의 '그렇다' 비율이 높다. 특히 '서로 잘 알고 지낸다'고 느끼는 상호 친밀 정도에서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. 60세 이상(31.0%)이 60세 미만(17.1%)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13.9%p 높다.

●●●●●: 60세 이상 ●: 60세 미만 단위: %



· 비율은 '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or 그런 편이다'와 '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or 매우 그렇다'의 비율을 합해 산출함

· 자료: 대전광역시, 『2024 사회지표』, 원자료 분석

1) 통계청, 주민등록인구현황

2)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% 이상인 사회

사회적 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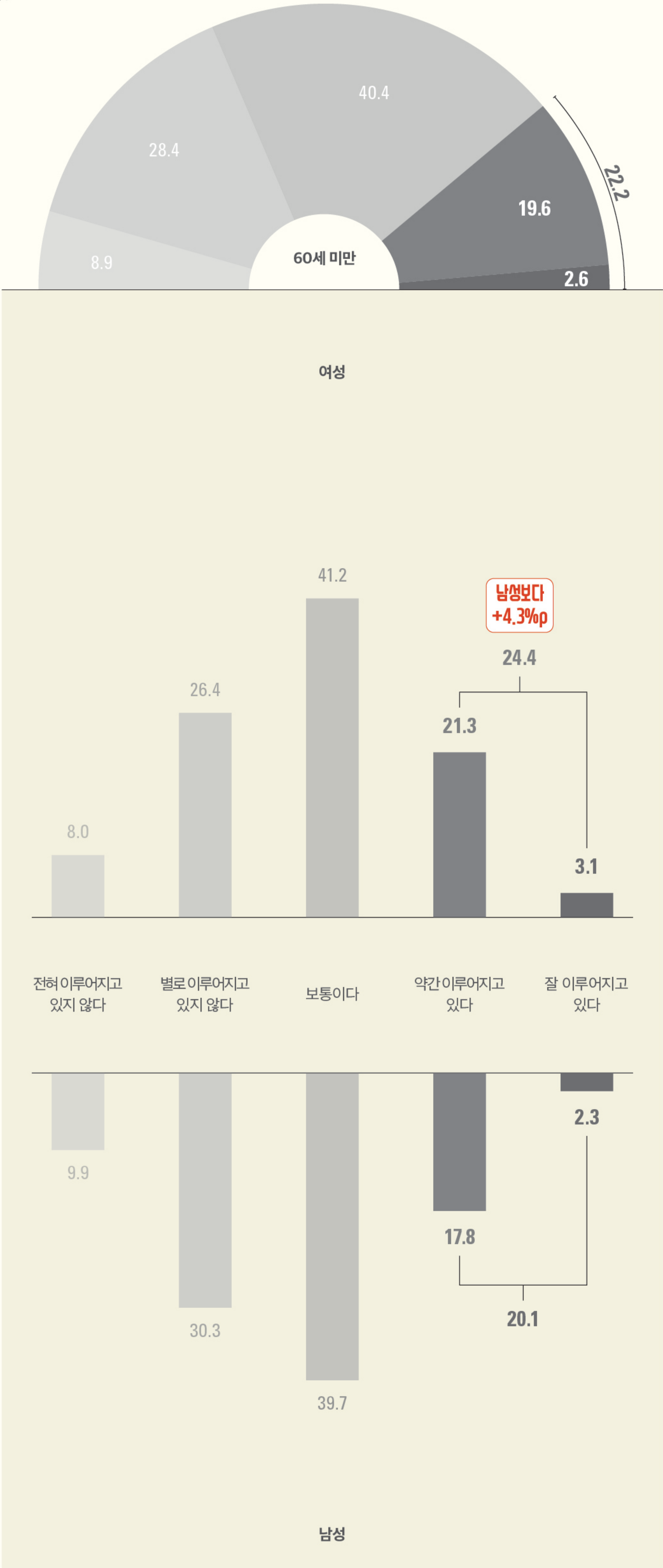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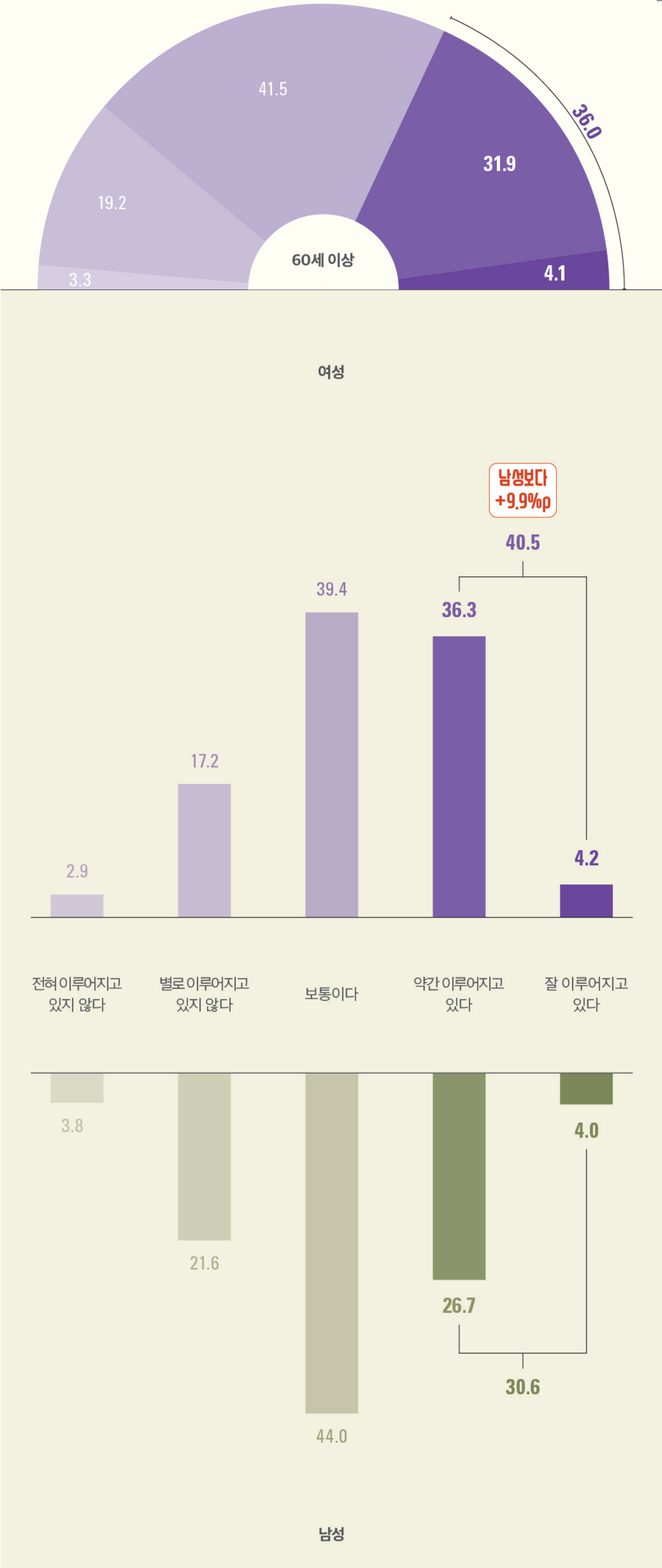
60세 이상 여성, 40.5%

“이웃과 소통 잘돼”

이웃 간의 소통에 대해 ‘잘 이루어지고 있다’고 응답한 60세 미만 대전 여성 24.4% 남성 20.1%로 여성이 남성보다 4.3%p 높다.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40.5%, 남성 30.6%로 여성이 남성보다 9.9%p 높다. 60세 이상이 60세 미만에 비해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. 이는 60세 이상 여성의 이웃 간 소통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.

이웃 간의 소통

단위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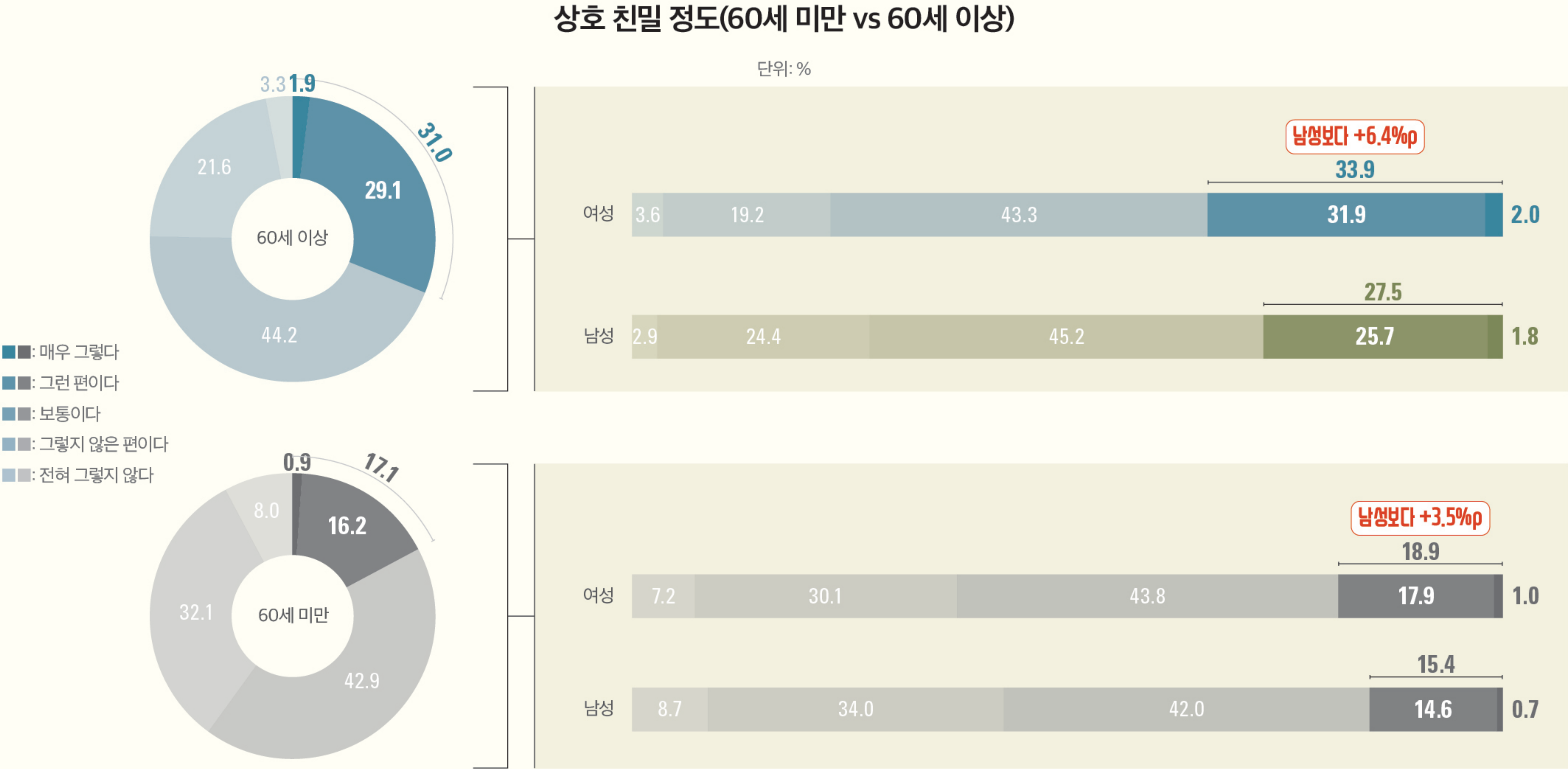


·자료: 대전광역시, 『2024 사회지표』, 원자료 분석

공동체 의식

잘 알고 지낸다?
60세 미만<60세 이상,
남성<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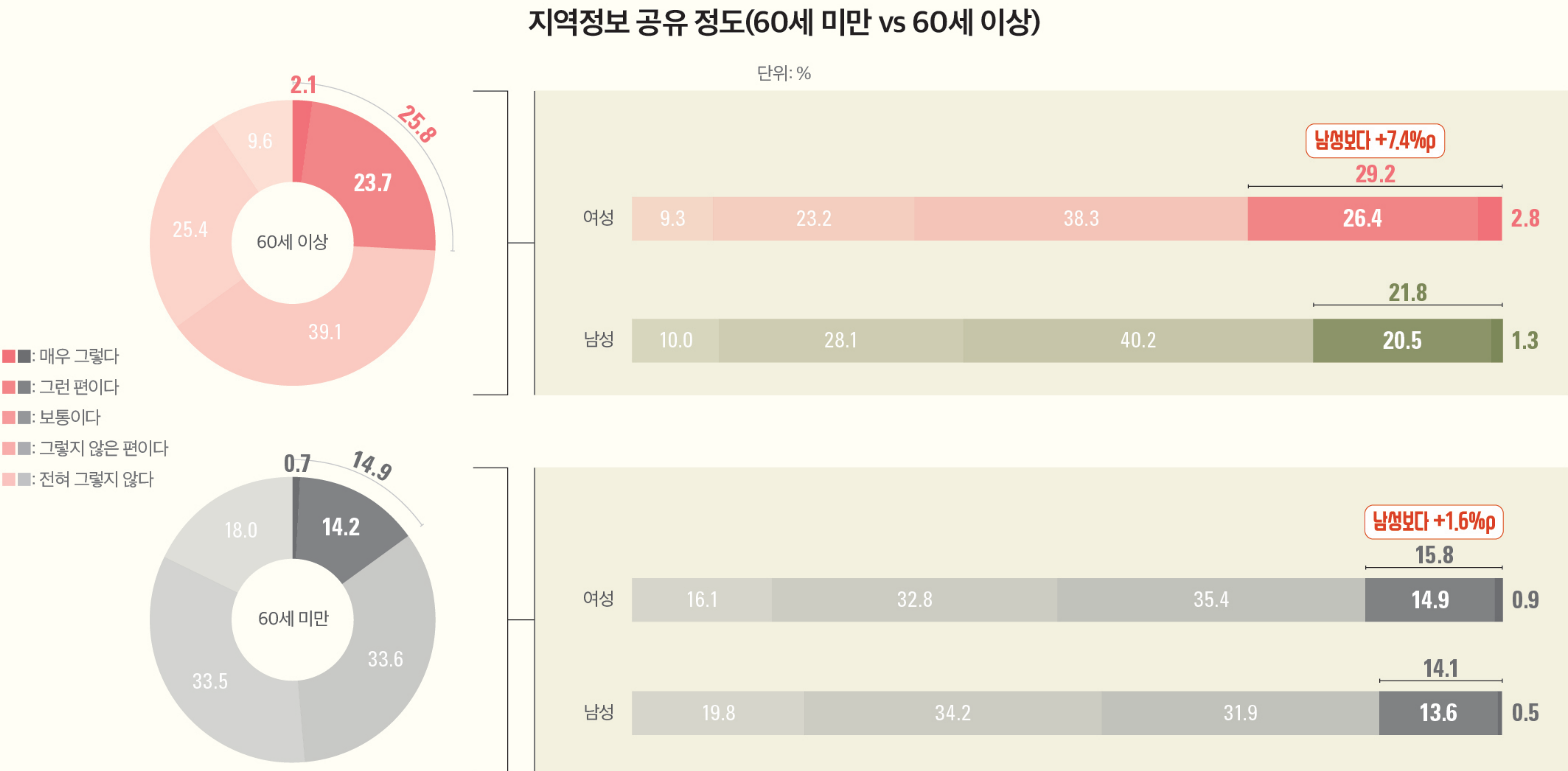
‘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’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60세 이상 대전 여성은 33.9%, 남성은 27.5%로 확인됐다. 60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미만(여성 18.9%, 남성 15.4%)과 비교해 ‘그렇다’ 비율이 높고, 성별 격차 또한 컸다.



·자료: 대전광역시, 『2024 사회지표』, 원자료 분석

60세 이상 여성,
동네 일에 대한
정보공유 활발해

60세 이상 대전 여성의 29.2%가 ‘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’고 응답했다. 이는 동일 연령대의 남성보다 7.4%p 높은 수치이다. 반면, 60세 미만 대전 여성은 15.8%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. 공동체 내 정보 공유에 있어서 60세 이상 대전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, 60세 미만 여성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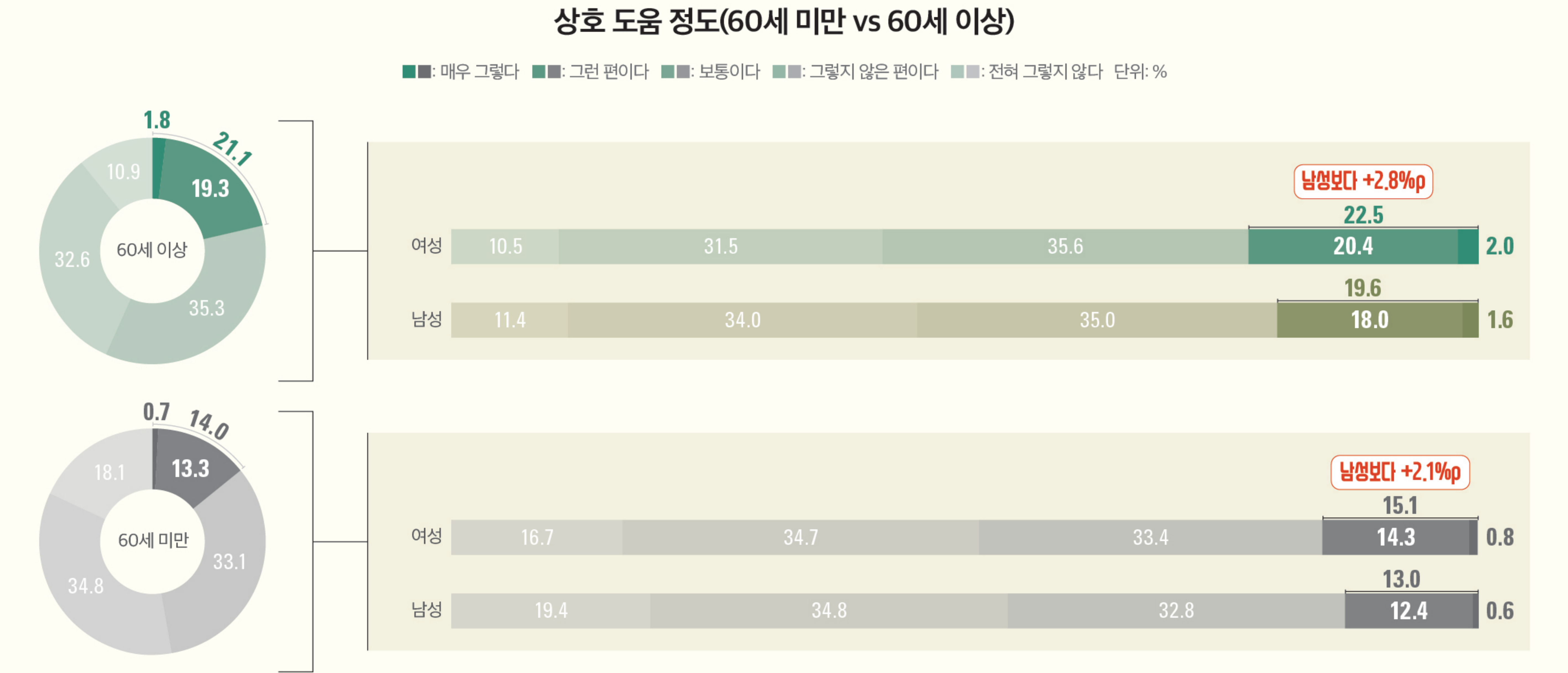


·자료: 대전광역시, 『2024 사회지표』, 원자료 분석

공동체 의식

60세 이상 여성, 22.5% “서로 잘 도와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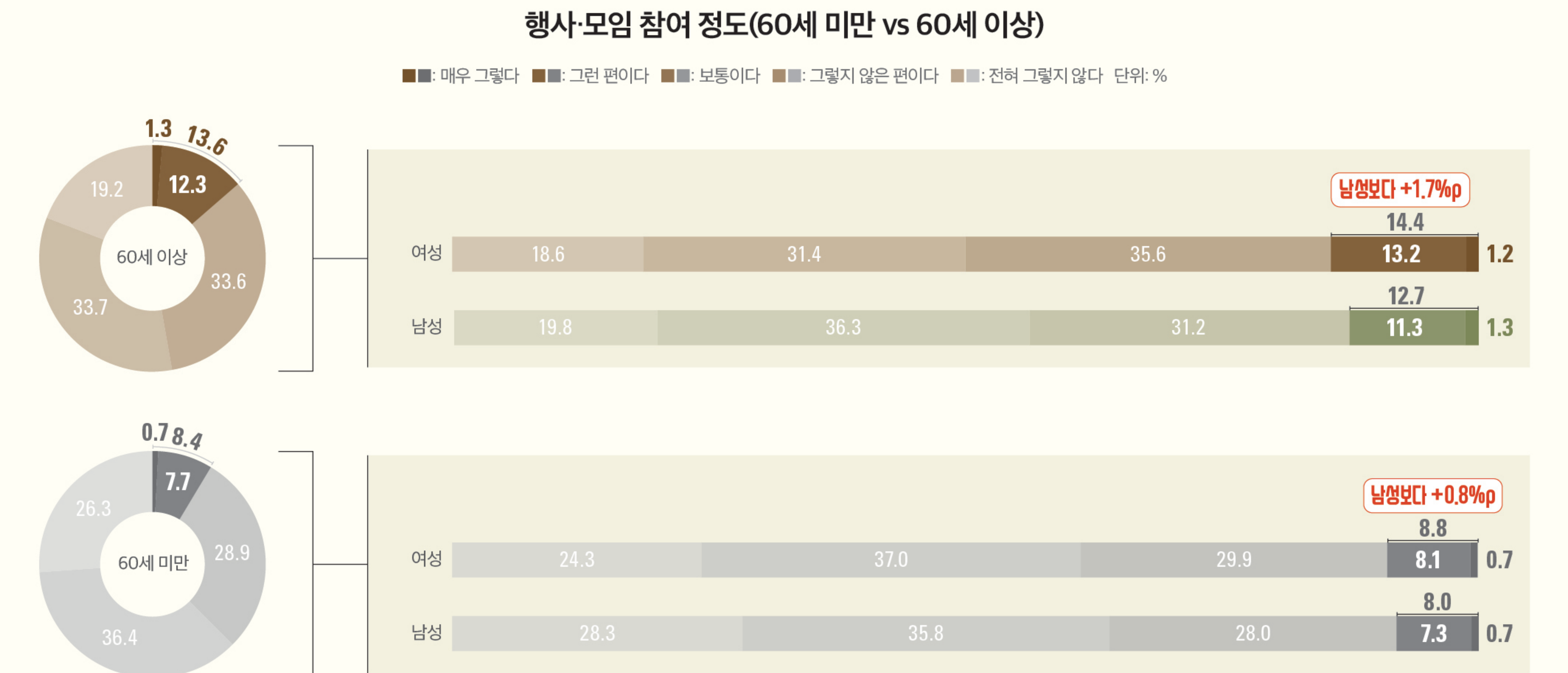
상호 도움 정도에 대해 ‘그렇다’고 응답한 60세 미만 대전 여성 15.1% 남성 13.0%로 여성이 남성보다 2.1%p 높다.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22.5%, 남성 19.6%로 여성이 남성보다 2.8%p 높다.



·자료: 대전광역시, 『2024 사회지표』, 원자료 분석

6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, “동네 행사·모임 많이 참여해”

‘동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’에 ‘그렇다’고 대답한 60세 이상 대전 여성은 14.4%, 남성은 12.7%로 나타났다. 60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미만(여성 8.8%, 남성 8.0%)과 비교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다. 앞서 살펴본 소통과 공동체 의식 항목 중 가장 적은 남녀 차이를 보였다.



·자료: 대전광역시, 『2024 사회지표』, 원자료 분석